

추경 예산 중 국방·방위예산 감액은 낙찰차액·정산잔액 발생 및 상황변화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금액

<보도내용>

- 중앙일보, 매일신문, 데일리안 등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.

「호남고속도로 예산 추경 끼워넣은 與...드론 방어 예산은 삭감 / 7.4일」

「"李정부, 전 국민 현금 살포 위해 국방예산 905억 삭감" / 7.6일」

「"대통령실 특활비 늘리고 국방예산은 삭감...이게 진짜 대한민국인가" / 7.6일」

<기획재정부·방위사업청 입장>

- 방위사업 예산은 대규모 구매협상, 복잡한 시험평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타예산 대비 불용규모가 큰 특징이 있습니다.
- 이에따라, 낙찰차액, 정산잔액 발생 및 구매협상 결렬, 시험평가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분야에서 감액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.
 - 지속 추진이 필요한 방위사업의 경우, '26년에는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| 사업명 | 불용사유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| 시험평가 지연으로 연내 계약 불가 |
| 소형무인기대응체계B- I (R&D) | 낙찰차액 발생 |
| 이동형장거리레이더 | 국외판매 업체와 구매협상 결렬 |
| 120mm자주박격포 | 탄 규격 불일치로 구매불가 |
| 특수작전용권총 | 낙찰차액 발생 |
| 기동저지탄(R&D) | 전력우선순위 고려 도입시기 조정 |
| 대형공격헬기 2차 | 유무인복합체계로 소요조정 중 |
|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|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 지연 |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예산실 방위사업예산과 | 책임자 | 과 장 | 김건민 (044-215-746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미숙 (044-215-7461) |
| | 방위사업청 재정담당관 | 책임자 | 국 장 | 홍미루 (02-2079-6200) |
| | | 담당자 | 팀 장 | 이민휴 (02-2079-6710) |